

뇌졸중 환자의 양·한방진료 선호성에 관한 연구 - 22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

인제대학부속 서울백병원
이 정 근

Abstract

A Study of Preference between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by Stroke Patients

Lee, Jeong Keun

Dept. of Physical Therapy, Inje University Seoul Paik Hospital

During the last few decades, a stroke was known as the highest cause of death next to cancer in Korea. As the population of adults increases due to the improvement of both medical and living environments the number of stroke patients also tends to increase. Therefore,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their disease becomes a very important issue in terms of adult health. Accordingly, many medical researches for the stroke have been done recently. However, all of the surveys for the actual state of the stroke have been done by analyzing the patients only in oriental medical institution(OMI) or in western medical institution(WMI).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urvey by analyzing the patients in both OMI and WMI simultaneously in the same perio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pport the stroke patients by supplying basic information such as the preference of the type of medical institution and the actual state of the utilization of medical systems. To do so, 457 stroke patients were chosen from 22 university hospitals that have both OMI and WMI. Only 348(76.1%) patients, {181(52%) from WMI and 167(48%) from OMI}, answered the questionnaires.

The analytical results obtain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Stroke patients who prefer OMI to WMI have following backgrounds and conditions ; fifties and sixties, lower educated, no religions, lower income, the early stage of disease, the first time of falling disease, period of 1~3 months after falling disease, and the case of non-surgical operation. Otherwise stroke patients who prefer WMI to OMI have following background and condition ; below forties, higher educated, Christianity, higher income, the middle stage of disease, more than one occurrence, period of more than 3 months after falling disease, and the case of taking surgical operation.

뇌졸중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악성신생물 다음으로 두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이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생활환경의 향상으로 성인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뇌졸중 환자수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어 이들의 예방과 치료는 성인병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금까지의 임상적 고찰과 연구는 많이 발표되어진 바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는 그 대상이 양방이나 한방의료기관 어느 한쪽으로 치중되어 있어서 같은 기간에 동시에 조사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본 연구는 뇌졸중 치료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선호하는 이유 및 이용실태를 조사분석하고자 조사대상인 22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 및 한방치료를 받는 뇌졸중 환자를 설문조사하였다. 설문결과 대상환자 457명 중 348명(76.1%)이 응답하였는데 양방환자가 181명(52%), 한방환자가 167명(48%)이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령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2.7배 양방을, 가장 많은 50대와 60대에서는 1.3배 한방을 선호하고, 70대 이상에서는 같아지고 있었다($p < 0.05$).

2. 교육수준별로 보면 국졸 이하에서는 1.8배 한방을, 중졸과 고졸은 비슷하고, 전문대졸 이상은 4.9배 양방을 선호하였다($p < 0.01$).

3. 종교별로 보면 환자 중 기독교와 천주교 신자는 2배 정도 양방을, 불교신자는 비슷하고, 기타 종교 및 무교인은 1.7배 한방을 선호하였다($p < 0.01$).

4. 소득수준별로 보면 하위소득계층인 경우는 2.9배 한방을, 중위소득계층은 비슷하고, 상위소득계층인 경우는 2.7배 양방을 선호하였다($p < 0.01$).

5. 기능상태별로 보면 초기 이완기는 1.2배 한방을, 중간단계인 경직기는 1.5배 양방을 선호하고, 회복기에는 비슷하였다($p > 0.05$).

6. 재발경험별로 보면 가장 많은 처음인 경우에 1.1배 한방을, 재발 이상인 경우는 1.8배 양방을 선호하였다($p < 0.05$).

7. 발병기간별로 보면 1개월 미만은 비슷하고, 가장 많은 1개월부터 3개월 미만은 2.8배 한방을, 3개월 이상은 2.5배 양방을 선호하였다($p < 0.01$).

8. 수술유무별로 보면 수술한 경우는 13.5배 양방을, 안한 경우는 1.5배 한방을 선호하였다($p < 0.01$).